지상백고좌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금강경 10만독 정진 중… 불가능은 없다”



법산 스님은…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1년 수계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 교수로서 평생 연구와 후학양성에 진력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맡아 학교 발전에 진력했으며 현재는 법계위원장으로서 조계종 법계를 총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지종가(佛之宗家) 국지대찰(國之大刹)이며 세계문화유산 도량인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다. 인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축산은 언제나 부처님 품과 같이 포근하고 따뜻하기만 하다. 곳곳을 장엄한 연등과 산중에 고개를 내민 새 생명들이 어우러진 영축산은 그야말로 화엄세계다.

수백 년 수령의 나무들이 어깨를 맞대고 춤을 추는 무풍한송(舞風寒松)길을 지나 역대 조사들을 모신 부도전을 거쳐 일주문을 통과해 절 안으로 들어갔다. 평일이었지만 절을 찾은 불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탑처럼 쌓였던 공양간 비빔밥이 순식간에 동이 나는 것을 보며 ‘역시 통도사’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2~30명씩 단체로 한국의 최고 사찰을 찾은 동서양 외국인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좋은 절, 통도사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시탑전(侍塔展)을 찾았다. 시탑전은 통도사 계곡 건너 사자목 5층 석탑 아래 위치한 원로스님들의 거처다. 시탑전 3호실의 방문을 두드리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들어오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관세음보살~”

‘해방둥이’로 올해 팔순을 맞은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가 천진불의 미소를 보여준다.

건강을 여쭈는 질문에 “사람들이 나만 보면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묻는다. 세수도 자주 안 하는데, 내 얼굴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고 환하게 웃는 법산 스님은 ‘언제나 청춘’의 모습 그대로다.

스님의 미소 너머로 액자가 하나 보였다. ‘일륜교결 만리등광(一輪皎潔 萬里騰光)’.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글씨다. ‘둥근 보름달이 밝고 맑으니 만리에 빛을 비춘다’는 의미로 성파 스님이 법산 스님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한다.

“산중에 종정스님이 계시니 모든 것이 여법(如法)합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150여 대중이 함께 공양을 합니다. 종정스님부터 사미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해요. 공양을 하는 그 모습만 봐도 절로 신심(信心)이 나죠. 성파 스님이 종정에 추대되시고 ‘상요청규 필순화목 보리군생(常要淸規 必順和睦 普利群生)’을 교시로 내리셨습니다. ‘어느 때나 청규를 굳게 지키고 모름지기 대중과 화합을 이루며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영축총림 대중들은 항상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법산 스님은 “통도사만큼 좋은 절이 없다”고 말해왔다. 왜 좋은지 다시 여쭈었다.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어른들을 모시고 산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많은 대중스님들과 살면 서로의 거울이 되어 줍니다. 더불어 소통하고 서로의 수행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수행의 반은 대중들이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역사적 맥락을 보면, 신라 자장 율사가 구법(求法)을 위해 방문한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셔와 통도사에 모셨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조성하고 금강계단을 설치했어요. 계단을 설치한 것은 사찰이 계율(戒律)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오대산이 화엄도량이고 자장 스님 역시 〈화엄경〉을 공부해서 법을 펼치셨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계율이 있었습니다. 승단의 기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영축총림 통도사는 그 존재이유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통도사는 계율도량입니다. 계율은 승단의 근본 당체입니다. 계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계율을 바탕으로 선정에 들어가 반야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함께 이뤄져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01년 생일, 금강경 10만독 발원
매일 새벽 4시 기상… 경전 독송해
‘응무소주 이생기심’ 전환 이루고파

출가자, ‘출가 초심’ 항상 되새겨야
지계는 ‘출가자 마음 속 지주’ 같아
재자자는 보현행원품 보며 공부하길

〈유교경〉에서 부처님은 ‘내가 설사 없더라도 계(戒)를 스승으로 삼아 잘 지키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으니, 부디부디 슬퍼하지 말고 오직 계를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라. 너희가 계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천년만년 살아있더라도 소용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계위사(以戒爲師)의 가르침이죠.

영축총림 통도사는 창건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율을 중시하는 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선지식들에게 공부를 배우는 기쁨

법산 스님의 ‘영축산 애정’은 변함없었다. ‘어른’으로서의 안목도 여전했다. 법산 스님은 “출가 후 훌륭한 어른들에게 법(法)을 배울 수 있었던 복(福)을 누렸다. 그 어른들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회고했다.

법산 스님은 1945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열다섯 살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했다. 가난했던 소년은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머리를 깎았다. 어린 스님은 남해 망운암에서 고시공부하는 형들에게 묻고 또 물어가며 중고등 과정을 마쳤다.

“중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가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며 권하셨어요. 스님들이 경전 공부하는 걸 보신 거죠. 염불하는 법, 종치는 법 등 불교 생활과 의식을 다 한문으로 배웠는데, 배우는 게 재미있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당시 남해에는 검정고시를 치를 곳이 없어서 경남 고성으로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 고성 옥천사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 스님들 가운데 마산대학(지금의 경남대학교) 출신이 많았어요. 전신이 해인사에서 세운 해인대학이라 영남지방스님 대부분이 여기를 다녔죠. 저도 자연스럽게 마산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1967년 마산대학 재학 당시 서경수 동국대 교수와 인연이 됐다. 서경수 교수가 마산대학 특강을 왔다가 범어(산스크리트어)를 잘하는 법산 스님을 보고 동국대 편입을 권했고, 동국대로 옮긴 스님은 범어로 된 대승경전을 줄줄 욀 정도로 공부에 전념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탄허 스님에게 〈사서삼경〉을 비롯한 동양철학 전반을 배웠다. 박사과정을 마치고는 동국대서 강사로 강단에 섰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부족함을 느껴 인도철학을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도 유학을 결정하고 탄허 스님에게 인사드리러 갔더니 ‘불교를 공부하려면 중국이 좋다. 대만으로 가라’고 하셔서 바로 방향을 바꾸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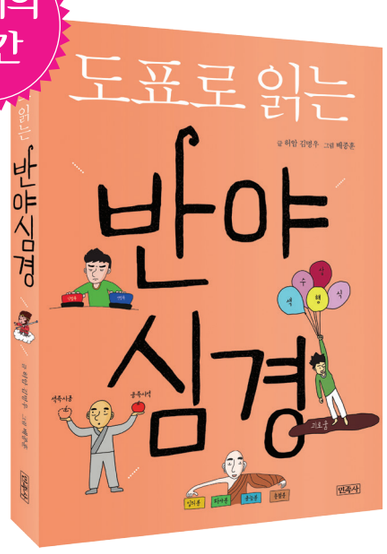
스님은 1980년 9월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 6년간 공부했다. 공부는 재미있었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학업에 전념했다.

13면에 계속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